

“소설은 진실에 가까운 것...진짜 삶의 모습 들어있어”

목표 출신 김세희 작가(32)가 첫 번째 젊은이들의 삶의 단면 생생하게 담아내 한예종 대학원 졸업...젊은 작가상 수상



〈민음사 제공〉

“20~30대 젊은이들의 삶의 단면을 담아 보고 싶었어요. 연애, 취직, 결혼 등 사회 초년생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한편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회생활 보고서’이자 ‘인간관계 관찰일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분의 관계다.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사회생활은 일상을 영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브레이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했다. 그 사이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까지 겹쳐 있으니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소설 창작이 녹록지 않았을 터였다.

김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작가와 비슷한 연배의 소재라 창작을 하는데 감정이입이 좀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싶다. 각각의 단면들은 젊은 시절에 한번쯤 겪었을 법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정서’로 다가온다. 목표의 정서, 일테면 남도의 감수성 때문이 아닌기리는 물음에 작가는 “그렇다”며 웃었다.

“목표에서 태어나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가끔 목표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면 소설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확실하게 느끼는 감각인데 어린 시절과 십대 시절은 한 인간의 형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김 작가는 “내가 쓰는 글에도 이른바 ‘목표포진 감성’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며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적인 시각과 감성, 작고 투박하지만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내가 쓰는 글과도 닮아 있다”고 했다.

그녀는 서울시립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4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 1학년 과정을 다니며 쓴 작품 두 편이 ‘세계의 문학’에 당

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잠시 직장생활을 했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습작을 했다. 그 문정시절에 강영숙 소설가의 창작수업에서 만난 이들과 소설을 쓰고 합평하는 모임을 한 주에 한 번 했다. 그녀는 당시 “하루 종일 읽고 쓰면서 소설 생각만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그때 그 수업에 나가지 않으면 어쩔 뻔 했나 생각해. 여러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합평을 하면서 내 글을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고 코멘트하면서 소설을 읽는 법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작가는 문학을 자신을 더 많은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현실 말고도 더 풍부한 다차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4월에는 새 장편을 계간 ‘창작과 비평’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한다. “갖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사회초년생의 설렘과 애환”을 다룬 이야기가 될 것 같다. 5월에는 ‘뫼터’ 16호에 전제했던 경장편 ‘항구의 사랑’이 나올 예정이다.

“소설이란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것, 미디어에서는 말하지 않는 진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담아내는 것이 소설이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공개 모집

28일~4월3일 접수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오는 10월 중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될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정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창의도시 정책포럼과 연계해 페스티벌의 외연을 대폭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선정될 예술감독은 10월 중순 열리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물론 그 예에서 6월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7월 세계수업연수권대회(FINA) 등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미디어아트 관련 행사까지 아우른다.

응시자격은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 및 축제에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뽑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재단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 접수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12일 발표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중 문학과 문화 탐구 연구서 발간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총서’ 2권



조정래 ‘태백산맥’, 장아이링 ‘세계’ 등 양국의 소설을 대상으로 문학적 공간과 의미에 대해 탐구한 연구서와 중국 근대의 문화와 문학을 탐색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소장 엄영욱)는 최근 동아시아 문학과 문화에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모아 ‘동아시아연구소 총서’ 2권을 펴냈다.

전영의박사 ‘한국과 중국의 문학적 공간과 의미-한국학으로서 한·중 소설 다시 읽기’ (역락), 엄영욱·이종민·정영호 박사 ‘중국근대문화연구’ (전남대출판부)가 그것.

1권 ‘한국과 중국의 문학적 공간과 의미-한국학으로서 한·중 소설 다시 읽기’는 동아시아에서 한국학과 비교문학의 상관성, 해외 한국학의 현황,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한문 목적의 한국어 문학교육, 한국어 문학교육에서 비교문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위화의 ‘황제’, 왕안시의 ‘장한가’, 장아이링의 ‘세계’, 조정래의 ‘태백산맥’, 채만식의 ‘탁류’ 등을 푸고, 들뢰즈, 랑시에르, 바디유, 가타리, 벤야민 등 서양 근대철학자들과 데이비드 하비, 에드워드 램프와 같은 사회지리학자들의 이론을 접목해 텍스트 공간과 장소를 논한다.

2권 ‘중국근대문화연구’는 ‘초기 근대’에서 식민, 피식민의 근대가 형성되는 역사적 시간을 다룬다. 중국의 근대가 아편전쟁 이후 획기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부의 다양한 비판과 모색을 통해 변화의 흐름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의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8년 장기 흥행 코미디 연극 ‘보잉보잉’ 광주 찾는다

28일~다음달 28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대학로에서 18년 동안 장기 흥행을 이끈 코미디 연극 ‘보잉보잉’ (사진)이 광주 관객을 찾는다.

‘보잉보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간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전국 4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연극은 2001년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한 뒤 한 해도 간판을 내린 적 없을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2010~2011년 ‘인터파크 골든티켓 어워드’와 2008년 ‘토니어워드 베스트 리바이벌 워너’를 수상했다.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는 ‘보잉보잉’은 미모의 스텐디스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 주인공 조성기를 둘러싼 해프

닝을 다루고 있다. 조성기는 애인 셋의 비헝스케줄을 철저히 관리하며 몰래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어느 날 약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애인 셋 중 한 명인 이수자가 집으로 찾아온다. 성기의 외도를 숨겨주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 고해진구 순성과가 정부 육희의 노력과는 달리 지꾸만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성기의 애인 세 명 모두가 한 집에 모이면서 성기의 연애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다.



강예민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배우 강예민과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달이’ 역으로 인기를 모은 김성은씨가 번갈아 출연할 예정이다. 장은석·오진영 (조성기), 박세훈·신승철 (순성), 김현자·이수경 (육희), 나혜진·남지율·서가현 (이수), 정현진·이연우·최연아 (지수), 유은주·한지은·지혜연 (혜수)씨 등이 출연한다. ‘스캔들’, ‘마술가게’ 등 코미디 연극을 연출한 손남욱 극단 두레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만 12세 이상 관람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 휴무. 전석 3만5000원. 문의 1644-6755.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참가자 4월 6일까지 접수

(사)한국음악협회 광주지회(광주 음악협회·회장 김성훈)가 오는 4월13일 ‘34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를 연다.

이날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유치부·초등생·중등생·고등생으로 나뉜 관현악 중주와 오케스트라 합주, 작곡, 피아노, 성악(독창·중창), 현악(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 베이스·하프), 관악(플루트·오보에·클라리넷·바순·호른·트럼펫·트롬본·튜바·색소폰·우표늬) 등 6개 부문을 겨룬다.

신청은 오는 4월6일까지 구글 폼(goo.gl/DQBhLC)을 통해 할 수 있다. 부문별 경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회 3일 전 광주음악협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gj-music)에 게재된다. 문의 010-5767-1650.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백세 짬뽕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영어), 샵비스트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 강 버 티 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폴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 주 공 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청 학 철 학 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합,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클레버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그 집 고 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

☎010-9277-2011, 010-4624-8457

기 담 철 학 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루 광 닭 강 정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